

01 교회소식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다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읽는 듯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가득했던 이희선 목사 유럽 선교와 우림북 USA, '2016 ICRS' 참가 소식.

02 생명의 말씀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쏟으신 물과 피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물과 피이며, 우리를 사랑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물과 피이다.

03 기획특집

공홀과 용서의 사랑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구세주 되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끝없는 공홀과 용서를 통해 마음에 되새겨 본다.

04 간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90도로 굽어진 몸이 기도로 펴진 프랑스 요람 조지오 형제와 불 붙은 고속버스에서 운전기사를 구한 강정규, 심완섭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745호 2016년 7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유럽 영혼들을 깨운 하나님 권능의 역사! 이희선 목사, 권능의 손수건 집회 인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이 질병을 치료받고 각종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사진 1)의 유럽 4개국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페인 사마리아교회(사진 2~8), 일드프랑스만민교회(사진 9), 벨기에 에노만민교회(사진 10), 스위스 가정교회(사진 11) 영혼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

사도행전 19장 11~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

오늘날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국내외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9일~24일에는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에서 손수건 집회가 진행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첫 일정은 스페인 사마리아교회에서 6월 12일에 있었다. 이 집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엔라쎬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받고 있는 호세 카르시아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이희선 목사는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히 11:1~3)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했다. 그 결과, 마리아 마르피네즈

사모는 무릎관절염을 치료받았으며, 빠르게 성도는 지팡이를 버리고 걷게 되었고, 호세 캄포스 성도는 추간관탈출증을, 라니아 성도는 천식을, 이사벨 성도는 골반관절염을 치료받았다. 이 밖에 신장병, 크론병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6월 15일에는 프랑스 흘리갯TV(사장 우타야 쿠마르 목사) 생방송에 출연해 '권능팀'의 공연 후 이희선 목사가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히 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저녁, 일드프랑스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에서는 이 목사의 설교 후 손수건 기도를 통해 90도로 굽은 채 살아온 소년의 몸이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다(4면 참조).

6월 19일에는 벨기에 에노만민교회 창립 3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있었다. 집회 시 이희선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멜빈 성도와 옥평성 성도는 실명된 왼쪽 눈이 회복되어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외에도 난청, 천

식, 허리디스크, 관절염,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하였다.

6월 21일, 스위스 가정교회에서는 이희선 목사가 설교 후 손수건으로 기도를 해 줄 때 독일에서 온 성도가 시력이 회복되어 두꺼운 안경을 버렸으며, 전직 축구선수였던 크리스

성도가 심각한 허리 통증을 치료받았다. 죄악으로 관영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 붓듯 부으시어 영적으로 침체된 유럽 영혼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보이시며 은혜의 단비로 흠뻑 적셔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우림북 USA, 세계 기독교 소매 전시회(ICRS) 참가



▲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소재 듀크 에너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6 ICRS'에서 '우림북 USA'가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 60종과 영어 번역 36종, 스페인어 번역 26종 도서와 전자책을 전시 홍보하였다. 또한 『십자가의 도』 책자와 우림북 대표 노경태 장로를 비롯한 출장팀의 활동이 ICRS 공식 매체를 통해 게재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33~34)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9~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어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흠도 점도 없는 의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민수기 9장 12절에도 출애굽 당시의 백성에게 ‘어린 양을 먹되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요 1:29).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며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장 과정을 겪으셨기에 구세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은 우선 사람이어야 하고,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의 후예(後裔)가 아니어야 하며,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이 뼈와 살로 이뤄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채찍에 맞으면 아픔을 느끼고 피곤함과 목마름,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마 4:2; 요 4:6).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확증하기 위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와 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입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 나가는 만큼 죄악이 벗어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와 물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피와 물이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피와 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입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 2.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섭리

요한복음 19장 34절 후반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한 대로 로마 군병은 이미 숨이 끊어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흘리신 피로 인해 처참한 모습이셨고 이미 호흡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병이 다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 1)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곧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 사람과 같은

## 2) 육신을 가진 사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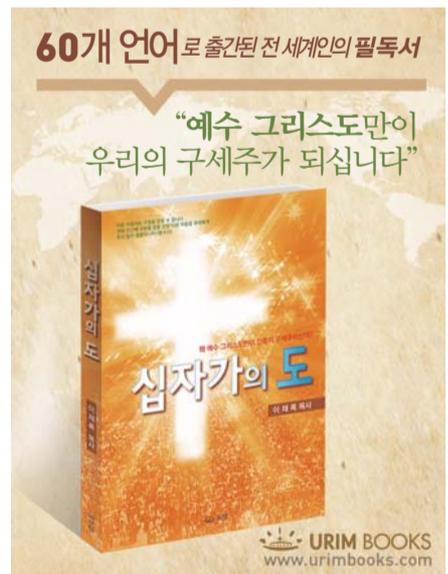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과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어떠한 죄도 범치 아니하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진리대로만 사셨던 것입니다. 곧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불같이 기도하며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거룩하게 사실 수 있으셨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셨기에 오직 기쁨과 감사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신속하게 죄악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섭리를 밝히 알면 구세주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 날은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날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었기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지요(요 19:31).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게 되면 더 이상 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므로 빨리 숨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에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이 확인되었기에 다리뼈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끝이 없는 공훈과 용서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  
그리고 참 자녀 얻을 것을 바라시며 오래 참으시되 끝이 없는 공훈과 용서의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우쳐 늘 감사의 향을 올려드리는 참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1~22절을 보면 예수님께 수제자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물으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답변하셨다. 이는 일흔 번씩 일곱 번,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칠(7)은 완전수인데 일흔 번은 일곱의 열 배이며, 여기에 또 칠을

곱했으니 무한대의 용서, 곧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공의의 법대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공훈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찌하든지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깨우칠 수 있다.

### ◆ 예레미야 18장 7~8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독이 심히 커 요나 선지자를 통해 40일 후 멸망할 것을 선포케 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 이하 온 신하와 백성, 짐승까지도 재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한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다(은 3장).

### ◆ 에스겔 33장 14~16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하여 바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를 살리고자 하신다.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다리셨다는 듯이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 하니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고(왕하 20:1~7), 므낫세는 우상숭배를 하며 심히 악을 행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왕위에 거할 수 있었다(대하 33:10~13).

### ◆ 누가복음 15장 31~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은 미리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 잔치를 배설하자 큰아들이 불평하고 서운해함으로 아버지가 그 마음을 달래 주며 하는 말이다.

만일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동생에 대한 사랑과 공훈이 있었다면 이런 불만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용서에 감사해 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동생을 안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느냐?”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늘 마음에 품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아들의 행색을 보며 한없이 측은한 마음에 잔치를 배설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공훈과 용서의 사랑의 마음이다.

## 영혼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동생의 좋은 점을 떠올리며 선한 말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셨고, 열심히 수소문하여 동생을 찾아 나선 뒤에는 남의 집 종으로 묶여 있어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빛을 갠아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동생을 용서해 주시도록 용서를 구하는 중보 역할까지 하고 계신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루실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습관을 좇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모두 버릴 수 있음을 오히려 감사해 하시며 늘 아버지 앞에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올

리셨다(눅 23:34).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 되고 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서는 아름다운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금빛 찬란한 보좌에 앉기를 마다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누구나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를, 모든 인간 경작의 섭리가 끝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의 대열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 처소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형제를 용서하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마 5:23~24 ; 골 3:13~14)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 7 Green July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7.3~ 7.9

###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을 만나려면 ■ 선 10
-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 공부 잘하는 비결 2-7
- 지옥 13-17 천국 21-27
- 요한일서 강해 7-10
- 2차 영혼육 1-4
- 창세기 강해 66-70

### GCN TV설교

- 우리가 채워야 할 공의(이수진 목사)
- 순종(이미영 목사)
- 행함(이희선 목사)
- 옫기 강해 19(신동초 목사)
- 열재앙 25(정구영 목사)
-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김태식 목사)
-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이재정 전도사)

###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9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53
- 내 마음의 찬양 33
- 창조와 과학 8
- 모두 드려요 33
- 즐거운 요리 24
- 옛날 옛적에 5
- English 13
- 뷰티풀 라이프 12
- 흥겨운 소리 6
- 플로리스트 6

### 해외성회 프로그램

- 필리핀 연합대성회 1
- 민음으로 걸어온 길 10
- 회상(시즌2) 5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 지난 6월 15일, 일드프랑스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시 이희선 목사의 손수건 기도로 요람 조지오 형제는 90도로 굽었던 몸이 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 90도로 굽었던 몸이 똑바로 펴졌습니다!

요람 조지오 형제 (16세, 프랑스)



저는 어릴 적부터 통합운동장애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는 불안장애까지 왔습니다. 통합운동장애로 인해 완전히 몸이 굽어져 머리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굽어진 상태로 걸어야 했지요. 여러 검사를 한 결과, 의사는 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심리 치료사들과 상담하고 입원 치료도 받아 보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2년 전부터는 많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의 엄마 릴루 성도님이 저희 엄마에게 일드프랑스만민교회에 한국어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지요.

2016년 6월 15일,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일드프랑스만민교회에 갔습니다. 이희선 목사님은 제게 여러 번 오셔서 머리와 등에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기도해 주셨고,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제 몸은 눈에 띄게 펴졌으며 마침내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은 기쁨과 행복으로 벅찼습니다. 이희선 목사님은 저를 성도님들 가운데 세우셨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 주셨는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결국 제 몸은 똑바로 펴졌고,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음을 믿는지 질문하셨고,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며 기뻐하셨고, 저 또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바로 걸어서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의 몸은 펴져 풀려 있었고 행복과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노르망디에 사는 할머니 댁으로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바캉스를 떠났습니다. 저는 정상이 된 몸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고, 저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일정 내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도 저녁 잠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낮 시간에도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쇼핑도 할 수 있고 식당에서 식사도,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추돌사고로 불이 난 고속버스에서 운전기사를 구하기까지

지난 5월 31일 오후 6시경, 저희는 대구 출장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북 상주시에 다다랐을 때, 전방 500m 지점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와의 추돌사고로 고속버스 뒷부분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즉시 차를 멈추고 트렁크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해 보려 했지만 불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불은 짙은 연기와 함께 계속 타올랐고, 저희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뒤로 밀려난 차체에 두 다리가 끼어 운전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렌카차 기사와 함께 쇠줄을 운전석 핸들에 연결해 공간을 확보하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운전기사는 몽롱한 상태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젊은 여성 한 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운전기사의 두 다리를 천천히 빼내어 옮긴 뒤 힘을 합쳐 차량 밖으로 부축해 나왔습니다.

불길이 커져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들이 반대 차선까지 날아가는 상황이라

반대 차선 차량들도 멈추게끔 조치를 취했지요.

몇 분 후 버스는 엄청난 불길로 전소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양방향 차량이 1시간 정도 움직이지 못했지요.

이후 도착한 119차량에 부상자들과 승객들이 탑승하는 것을

지켜본 후 대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처음 본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를 멈춰 도로 일부터 찾았던 것은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도리를 다하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운전기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이 난 차량에 뛰어든 것도 항상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목자의 모습과 각종 사건사고 속에서도 보호받는 만민 성도들의 수많은 간증을 보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신기하게도 저희는 운전기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이 난 차량에 뛰어 들어갔음에도 유독가스 냄새를 맡거나 느끼지 못했으며 아무런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눅 10:30~37)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제단에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격정근심 없이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대구 출장 길에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구해 지난 6월 8일, '용감한 시민' 표창을 받은 골든자산관리(주) 강정규(대대 5교구) 집사, 심완섭(대대 12교구) 집사.

버스의 불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때마침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버스 옆에 정차해 있는 견인차량과 승객들을 멀리 이동시켰습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68-7027, 010-7777-702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금암로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정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완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7,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